

# 임실군, 연작장해 예방 총력

### 농기센터, 시설재배 시 수량 감소·품질 저하... 토양 관리 당부

임실군이 시설채소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연작장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시설채소 재배는 동일작물 재배로 인한 연작장해 피해, 병해충 확산, 토양 물리성 등이 감소하고, 매년 수확량이 감소되고 품질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어 시설재배 농가들이 토양관리에 철저히 기해야 한다.

또한, 시설하우스 내 토양의 가장 큰 문제는 과다비료로 인한 염류집적과 유해미생물의 증식이며, 잔류염기가 강우에 의해 용탈되지 못할 때, 작물이 흡수하고 남은 염류에 의해 작물의 뿌리를 상하게 하거나 양분, 수분의 흡수 저해 등 생육에 많은 문제를 주고 있다.

염류집적은 작물 재배 횟수가 많아지고 비료와 퇴비를 과하게 사용될수록 더욱 심해지며, 특히 인산(P)과 칼

륨(K)의 집적이 심할 때 이들의 부성분인 염소(Cl)와 나트륨(Na) 함량이 증가하여 토질을 더욱 나쁘게 만든다.

특히, 염류집적은 작물과 토양, 뿌리 성장세를 직접 관찰해보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잎에 생기가 없어 보이는 경우, 낮에는 시들지만 저녁에는 생기를 되찾는 경우, 잎의 색이 정상일보다 진하거나 윤곽이 나는 경우가 있으며, 토양 관주시 물의 흡수가 좋지 않거나 토양 표면에서 입상(粒狀)으로 되면 염류집적이 많다고 판단하여 토양 관리에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표토에 흰 가루가 나타나거나 푸른 곰팡이 또는 붉은 곰팡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염류집적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더욱더 세심한 관찰 및 주의가 요구된다.

염류집적에 따른 이끼류의 우점현상으로 토양 지온상승 저하 등으로 생

육이 저조하고 토마토의 경우 뿌리썩음병, 기형과와 같은 병해가 나타나고 오이·호박 등의 경우에는 덩굴쪼감병과 같은 병해가 나타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토 관내 시설하우스 농가 현장 방문 지도를 강화하여 퇴비나 화학비료 오남용을 자제하고 토양 답수 비료의 효율적 혼합 방식, 고급 아미노산 관주를 통한 염류집적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농업기술센터는 연 6천여건의 토양검정을 무료로 실시해 과학영농의 발판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연작장해 발생포장에 대해서는 읍면농민상담소장이 연작장해 해결을 위한 포장 현장지도 및 토양검정을 통한 맞춤형 시비처방 현장컨설팅을 통해 현장민원을 해결해 시설채소 농가의 호평을 얻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공익장 박종호·효열장 박창모

### 임실군 청용면, 민민의 장 수상자 확정... 16일 수여

임실군 청용면은 제38회 청용면민의 날 행사를 앞두고 민민의 장 수상자를 확정했다.



공익장 박종호 씨



효열장 박창모 씨

게 기여했으며, 출향민들의 친목과 인적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고향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왔다.

또한, 박창모(56, 청용면 수면사무소에서 10년 근무)는 차매에 걸려 거동이 불편한 95세 고령의 시아버지 병수발을 몇 년째 도맡아 극진히 봉양해 주변에 귀감이 되고 있어 효열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면 관계자는 "면민의 장 심사의 원회를 개최하고 공익장에 박종호씨, 효열장에 박창모씨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공익장에 선정된 박종호(71, 전 재전향우회장)씨는 재전향우면 향우회장을 역임하면서 고향의 각종 행사에 몰심양면으로 지원함은 물론 향우회 조직과 운영발전에 크

##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 고창군, 오는 11월까지

고창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한다.

군은 개체수가 늘어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렵인 21명으로 피해방지단을 구성했다.

군 환경위생과(560-2875) 또는 읍·면사무소, 피해 방지단으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포획활동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민원의 사고에 대비해 피해방지단에 대해 수렵보훈을 가입하게 하고, 고창경찰서와 연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요령과 총기사용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현수막, 신문, 군 홈페이지, 이장회의 등을 통해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가 관할 읍·면에 피해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발효식품 매장 '리던' 전주한옥마을 개장

### 순창군·장수군 토마토발효고추장·발효쌈장·과일조청잼·청국장꾸키 등 80여 품목 전시 판매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건갈 때 좋은 순창의 다양한 발효식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창군은 지난 1일 전주한옥마을 향교 옆에 지상 1층 판매장과 지하 1층 편백나무 쉼터를 갖춘 발효식품 전문 유통판매장 '리던(REDDONE)'이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리던(REDDONE)'은 지역연계 발효식품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며 순창군과 장수군이 공동 수행했다.

지역연계 발효식품 육성사업은 다차산업 육성을 위해 원료공급체계 구축, 미생물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발효식품 개발, 공동생산시설 및 유통판매장 구축, 브랜드가치 향상 사업을 통해 발효식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순창군은 지난 1일 전주한옥마을 향교 옆에 지상 1층 판매장과 지하 1층 편백나무 쉼터를 갖춘 발효식품 전문 유통판매장 '리던(REDDONE)'이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황숙주 순창군수, 최용득 장수군수, 순창군의회 이기자 의장, 장수군의회 오재만 의장, 전주기전대학교 조희천 총장, 전북도청 관계자, 남포업체 대표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새롭게 출발하는 발효식품 유통판매장 '리던'의 개장을 축하했다.

황숙주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리던 매장은 순창군과 장수군에서 생산되

는 건강에 좋은 다양한 발효제품의 우수성을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며 "참여 기업에 매출 향상은 물론 기업 이미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향후 인천공항 등에 2호 3호 매장을 지속적으로 개설할 계획이다.

/순창=구인규 기자

## 취약계층 찾아가는 환경보건서비스

### 남원시, 생활환경 유해인자 진단 100가구·개선 30가구 제공

남원시는 올해 사회취약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전제로 하는 장애인·대문과·복거노인·한 부모 가정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 및 활동 공간에 대한 생활환경 유해인자 진단 및 개선을 통해 찾아가는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 급증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문제가 대두되면서 남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환경부와 함께 환경성질환 감시·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방법 및 진단 등 시민이 체감·공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형 환경보건

정책을 실시한다.

시와 환경부는 6월~11월, 진단 대상 100가구를 선정하여 환경보건 컨설턴트 및 측정기관에서 2인1조로 직접 방문하고 가구별 생활습관·양식 등 설문조사 및 실내 환경 점검, 미세먼지,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등(침수가구는 병원상미생물 추가) 점검할 계획이며, 실내환경 진단결과와 개선의 시급성 및 실효성을 고려해 선정된 개선 대상 30가구는 사회공헌기업의 후원으로 벽지, 장판 등 친환경 개선 자재 물품을 확보해 해당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지역특이점

### 남원경찰 '기능강화합동FTX' 실시

남원경찰서 생활안전과·청문감사관은 지난달 31일 오후 스마트위치(위치확인장치)를 활용 신변보호사건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강화합동FTX'를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터폭력 관련 신변보호를 요청한 여성 피해자가 전 남지친우에게 납치당하여 스마트위치 SOS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한 상황을 가정해 실제 사건과 같이 이뤄졌으며, 강력팀 여성청소년수사팀 등이 각 기능별 총력 대응하면서 피해자를 구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점검했다.

스마트위치는 경찰청에서 지급한 신변보호용 웨어러블 기기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SOS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신고가 접수되고, 보호자 및 경찰관에게 긴급 메시지와 신고자의 현 위치를 전송하는 기기이다.

이규선 생활안전과장은 "스마트위치와 POL-CARE 어플을 활용 신고접수부터 초동조치, 범인추적, 검거 등 단계별로 점검해 문제점을 발굴 개선해 나감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지속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지역아동안전 협의회 개최

임실경찰서는 지난 1일 2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아동업무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아동안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역아동안전협의회는 임실교육지원청, 임실군청, 임실자율방방대 연합회, 임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7명으로 구성되어 관내 초·중·고에 배치된 아동안전 지킴이와 배움터지킴이의 연계운동, 효율화 방안 추진으로 지역 아동안전 사회망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의 장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하여 등하교 시 아동들의 안전을 살피고 학교 주변 통학로 놀이터 등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주변 순찰 활동 및 청소년 비행, 탈선 지도 등 치안 보조 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체육회 창립총회 7일 개최

순창군이 체육단체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지난 3월 31일 개최하고 (통합)순창군체육회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창립총회는 오는 7일 개최한다.

군은 지난 3월 24일 정봉주 순창군의회 의원, 정경희 전북대 교수, 김영노 변호사, 체육공민사업소 오근수 소장, 순창교육청 유대영 장학사, 정종운 순창군육상연합회 회장, 공교환 순창군 통합체육회 공교환 사무국장 등 7명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했다. 추진위원회는 순창군체육회 창립총회 출범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출범 후 지체 해산된다.

통추위는 이날 안전협의회 앞서 통추위 간사인 서상의 체육진흥계장으로 부터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고 통합추진위원장으로 체육공민사업소 오근수 소장을 선출했다. 이어서 순창군체육회 정관(안), 순창군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 규정(안), 순창군 체육단체 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군은 순창군체육회는 지난 1999년 10월부터 사실상 전문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행정통합을 이루어 단일 회장과 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국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번 통합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통합)순창군체육회는 오는 4월 7일 창립총회에서 황숙주 군수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정관안 승인과 임원선출 등을 마무리해 시군 체육회 통합 완료시한인 4월까지 체육회 통합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순창=구인규 기자

#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J&J GRAPHIC**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